

“科學技術人은 인류문명의 위대한



오늘 第21回 「科學의 날」을 맞이하여 科學技術處 李 寬長官님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元老, 先輩 그리고 來賓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搖籃인 이곳 大德에서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땅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난 1968년도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주장하여 최초로 「科學의 날」이 制定된바 있습니다. 이후 이 科學의 날은 5회까지 科總이, 6회부터 작년 20회까지는 政府 주도로 科學技術處가 기념행사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科總이 다시 주관하게 되어 한층 感懷가 깊다고 하겠읍니다.

오늘날 세계각국은 科學技術開發을 국가발전의 핵심 목표로 정하고 치열한 國際競爭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技術保護障壁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우리에게 市場開放壓力과 物質特許制度的 수용등 여러가지 형태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천년대 技術先進國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제반 위협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課題가 아닐 수 없읍니다.

賦存資源이 빈약하고 地政學的 환경이 남다른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技術開發과 輸出增大를 통한 經濟發展을 이룩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사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科學技術人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創造와 革新의 자세로 研究開發은 물론 科學技術振興에 총력을 기울여 精進한다면 우리 앞날은 더욱 희망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歷史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이땅에서는 오랜 儒教的 慣習과 因循으로 인해서 科學技術의 전통과 合理的 思考方式이 결여되어 國家社會의 발전은 물론 近代化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고 하겠읍니다.

비록 科學과 技術이 추구하는 바가 물질적 풍요나 만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科學의 振興과 技術의 개발이 없이는 國家發展과 福祉社會가 쉽게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歷史的 現實이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우리는 2천년대를 향하여 「科學立國·技術自立」이라는 슬로건 아래 계속의 韓國을 심겠다는 강한 國民的 合意를 바탕으로 百萬科學技術人들이 오늘도 研究開發과 産業現場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光復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40여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의 産業과 科學技術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이적인 經濟開發과 함께 政治·社會·文化등 각 분야의 통합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된 것은 여기 모이신 科學技術人 모두의 높은 奉仕心과 노력의 結晶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읍니다. 이점에

創造者며 휴머니즘의 진정한 파수꾼”

서 특히 元老·先輩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敬意와 感謝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政府當局이 科學技術 드라이브 政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科學技術振興의 당위성을 온 國民속에 깊이 심어주고 技術開發投資擴大와 高級頭腦의 양성 그리고 각종 産業技術革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온 점에 대하여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지속적인 貿易黑字기록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가져온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시사를 해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百萬 科學技術人 여러분!

오늘과 같은 치열한 國際競爭時代를 살아가는 우리 科學技術人들에게 負荷된 임무와 사명은 새삼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지만 합니다.

祖國近代化의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던 지난 60年代 이후 우리 사회는 때로 未曾有의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오로지 科學技術의 振興과 暢達이 國家發展의 礎石임을 명심하고 일로매진한 나머지 오늘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바로 이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第21回 科學의 날을 뜻깊게 맞으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科學技術革新을 통한 국가와 사회 및 민족의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第6共和國의 출범에 즈음하여 앞으로 기술개발주자의 확대와 基礎科學 육성은 물론 學會學術活動을 더욱 진작시키고 연구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百萬 科學技術人들은 스스로가 歷史發展의 구심체라는 召命感을 더욱 가다듬으면서 國家와 民族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國民의 의식속에 創造와 能率 그리고 合理의 精神이 심어지고 科學者와 技術者 그리고 技能人이 함께 대우받는 소망스런 풍토가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가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科學技術의 發達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는 社會를 만들어 人類의 幸福에 폭넓게 기여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모든 科學技術人들이 책임과 道德律을 깊이 통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科學技術人들은 人類文明의 위대한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휴머니즘의 진정한 파수꾼이 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서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우리가 처한 歷史的 使命을 스스로 재인식하면서 21세기의 눈부신 科學文明을 선도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研究開發의 現場에서 헌신적인 노고를 다해오신 元老·先輩님들을 비롯한 全國의 科學技術人 여러분과 오늘 科學技術賞과 有功褒賞을 받으시는 受賞者 여러분께 깊은 激勵와 致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朴 泰 源